

2026. 6. 11 (목)

변동성의 정점 통과 중

- 금리, AI 우려에서 시작된 이격도 축소 조정, 만기일에 전쟁 변수까지 확대
- 기존 제시한 1차 지지선 이탈, 하단 단언하기 어려우나 7,000pt 레벨 테스트 예상
- KOSPI의 YTD 12MF PER 저점은 7.1배. 7,390pt 이하부터는 7배 이하로 -2 표준편차를 하회하는 수준. 절대적으로 싸다고 봐야할 구간

투자전략

Analyst 황수욱

soowook.hwang@meritz.co.kr

6월 8일 코멘트에서 KOSPI 1차 지지선을 7,700pt~7,940pt로 제시한 바 있음. 금리, AI 우려는 명분에 불과하고 5월과 유사한 이평선과 단기 이격을 줄이며 지지선을 다지는 변동성으로 해석했음. 여전히 AI 관련한 금리와 자금 조달 우려는 하락을 설명하려는 재료일 뿐 추세 변수는 아니라고 봄

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KOSPI는 방향성이 정해지면 해당 방향으로 변동성이 커짐. VKOSPI로 측정되는 변동성은 2008년 금융위기 고점 수준(89.3pt)을 넘어선 역사적 수준(6/9 91.2pt, 6/10 88.4pt)에 도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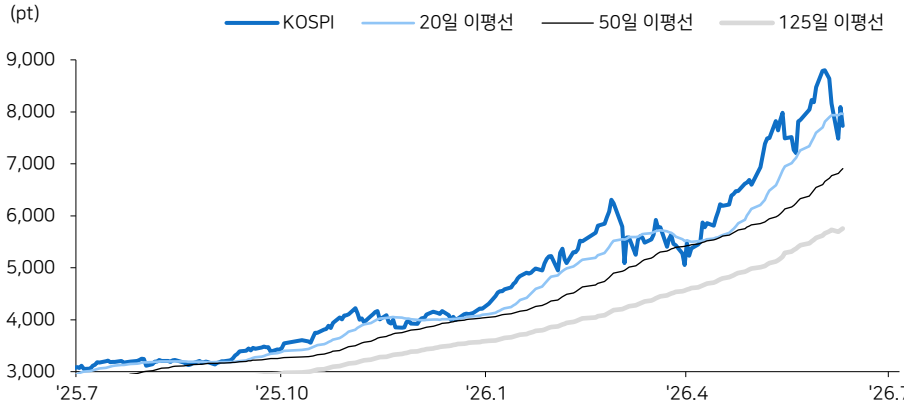
여기에 재부각된 미국-이란 전쟁 변수가 새롭게 추가되며 추가 하방 압력 발생. 기존 제시했던 1차 지지선을 하향 이탈할 변수. 이제는 단기 이격을 줄이는 조정의 크기를 넘어서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

이 시점에서 하단을 단언하기는 어려움. 지난 3월 전쟁 시기 50일 이평선이 지지선 역할을 했던 것을 고려하면 7,000pt를 테스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시장의 보편적인 생각일 수 있음

다만 이제는 KOSPI가 절대적으로싼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봐야할 것. 6월 10일 종가 기준 KOSPI의 2MF PER은 7.3배, YTD 저점은 7.1배. 7,390pt 이하부터는 7배 이하로 -2표준편차 범위를 하회하는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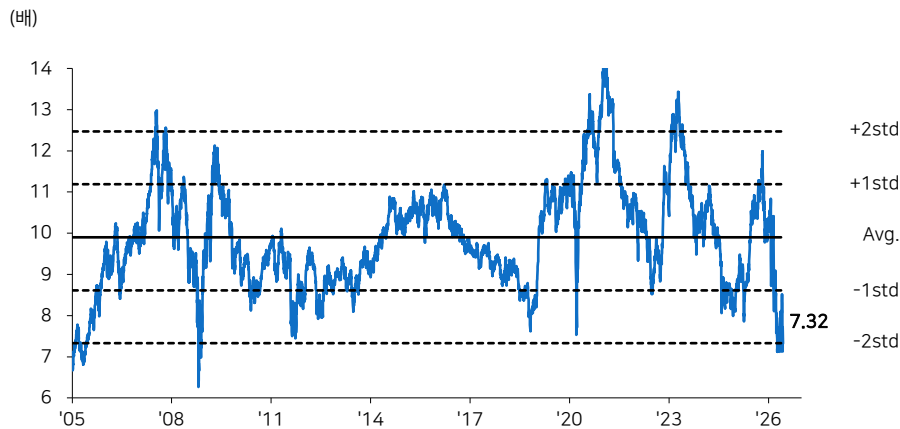
글로벌 AI 산업과 반도체 이익의 추세에 대한 의구심은 없음. 단기적으로 시장 하단을 단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나, KOSPI PER 7배 이하 수준에서는 싸다는 관점에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

그림1 KOSPI 지수와 이동평균선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KOSPI 12MF PER



자료: FnGuide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-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